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05-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2024년 하반기)

2024. 11. 13.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14.4도, 역대 최저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호감도는 27.6도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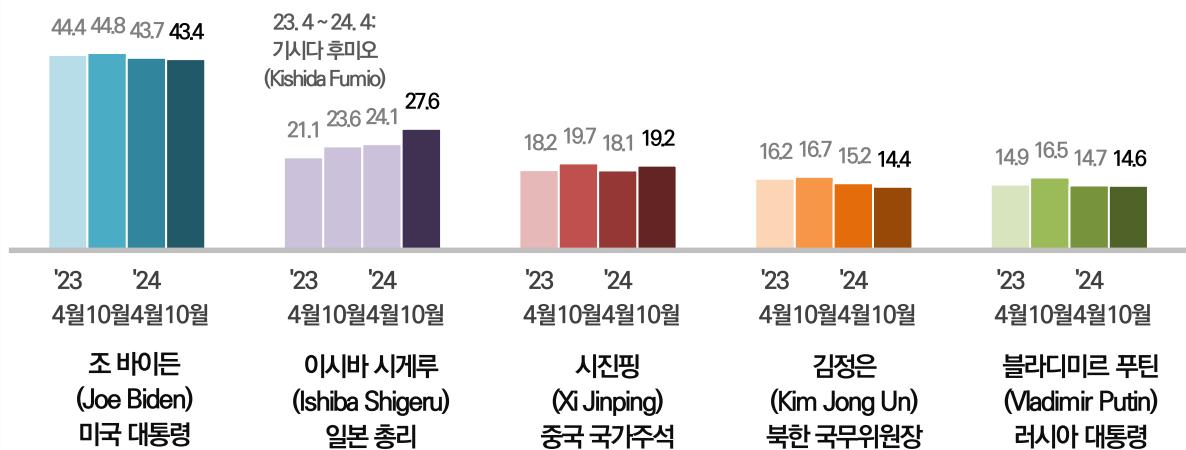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국가\(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정적인 호감도를 갖고 있다.

국가 호감도를 묻는 것과 동일한 감정온도 방식(0도 ~ 100도, 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호감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43.4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27.6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2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4.6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14.4도) 순으로 높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호감도가 지난 상반기 대비 1.1도 상승한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상반기보다 0.8도 하락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1일 취임해,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호감도는 27.6도로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전 조사 호감도(24.1도)보다 3.5도 높다. 다만 임기 시작 직후 실시한 첫 번째 호감도 조사로, 국내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14.4도, 역대 최저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호감도는 27.6도로 시작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비고: 2023년 4월 ~ 2024년 4월 일본 총리 호감도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전 총리의 호감도임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4. 21 ~ 24 // 2023. 10. 27 ~ 30 // 2024. 4. 18 ~ 22 // 2024. 10. 25 ~ 28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분포

(단위 : %)

	사례수 (명)	매우 부정적 (0~24도)	약간 부정적 (25~ 49도)	부정적	중간 (50도)	약간 긍정적 (51~ 75도)		긍정적	계
						매우 긍정적 (76도 이상)	긍정적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1000)	27	14	41	30	18	11	29	100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	(1000)	52	16	68	21	7	4	11	100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1000)	67	16	83	10	3	4	6	100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1000)	77	11	88	6	2	4	6	100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1000)	79	9	88	5	2	5	7	100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70세 이상에서는 53.4도로 보통 이상 18~29세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모두 한자리 수

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는 2년 전인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2.8도 하락했다.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53.4도로 여전히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수층에서도 보통에 가까운 호감도(48.0도)를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호감도 또한 60대(33.7도)와 70세 이상(36.5도)에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고, 보수층의 호감도(33.9도)가 진보층(24.5도)이나 중도층(24.9도)의 호감도보다 높다.

18~29세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9.2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9.0도), 김정은 국무위원장(9.6도) 호감도가 모두 한자리 수준으로 낮다. 이들 국가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세대와 관계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70세 이상에서는 53.4도로 보통 이상
18~29세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 모두 한자리 수**

(단위 : 도)

사례수 (명)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Ishiba Shigeru) 일본 총리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전체	(1,000)	43.4	27.6	19.2	14.6
성별					
남자	(493)	46.2	31.2	19.4	16.2
여자	(507)	40.6	24.2	18.9	13.0
연령					
18~29세	(157)	38.6	23.8	9.2	9.0
30대	(149)	43.2	24.9	13.4	11.4
40대	(176)	37.6	21.0	14.3	10.8
50대	(195)	38.1	26.5	23.7	17.5
60대	(175)	51.0	33.7	27.6	20.0
70세 이상	(148)	53.4	36.5	25.7	17.9
이념성향					
진보층	(270)	40.4	24.5	19.9	15.3
중도층	(374)	41.8	24.9	17.9	14.0
보수층	(321)	48.0	33.9	20.1	14.8
없음/모름	(35)	41.0	22.9	19.7	13.6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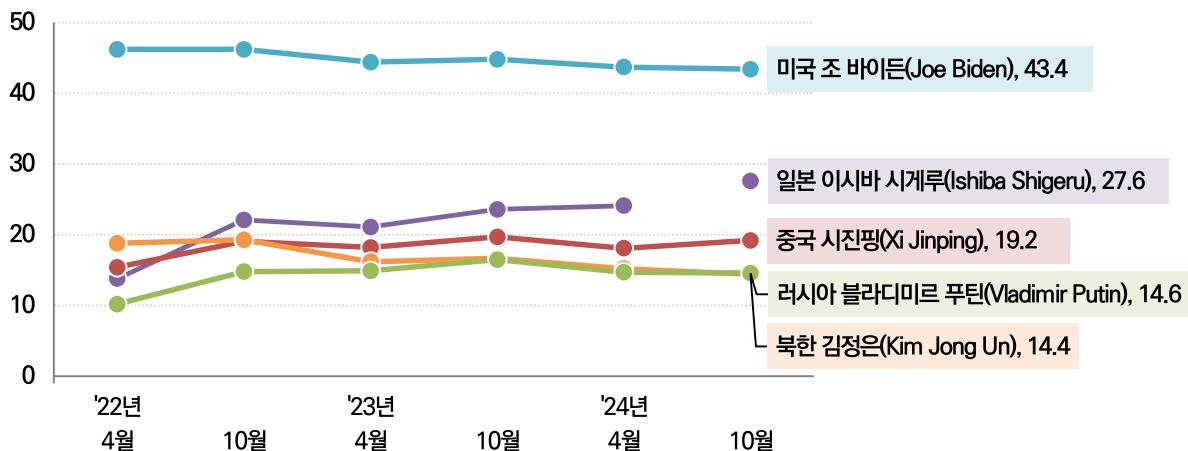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변화

(단위 : 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총리	기시다 후미오 (Kishida Fumio) 총리	이시바 시게루 (Ishiba Shigeru) 총리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Kim Jong Un)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			
2022년	상반기	46.2	13.8	–	–	15.4	18.8	10.2	19.3	14.8	14.7
	하반기	46.2	22.1	–	–	19.1	19.3	14.8			
2023년	상반기	44.4	21.1	–	–	18.2	16.2	14.9	16.7	16.5	14.7
	하반기	44.8	23.6	–	–	19.7	16.7	14.7			
2024년	상반기	43.7	24.1	–	–	18.1	15.2	14.7	14.4	14.6	14.6
	하반기	43.4	–	27.6	–	19.2	14.4	14.6			
평균(최근 1년)		44.3	24.1	27.6	27.6	18.7	14.8	14.8	14.7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비고: 2022년 이후 각 지도자별 최고점은 파란색, 최저점은 빨간색으로 표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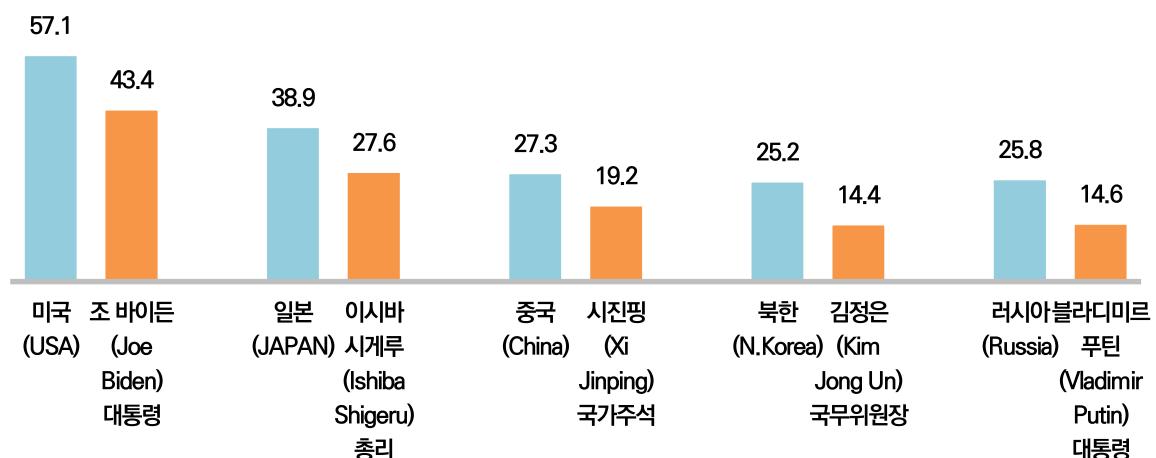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국가 호감도보다 낮은 경향 지속 다만, 그 격차는 지난 4월보다는 소폭 감소

지난 10월 초 진행했던 5개 국가별 호감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개 국가 모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보다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57.1도로 보통 이상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3.4도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이 첫 조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 호감도(27.6도) 역시 일본 국가에 대한 호감도(38.9도)보다 낮다. 중국, 북한, 러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각 국가 지도자의 호감도는 이보다 더 낮다.

다만 그 격차는 지난 4월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미국 호감도와 조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차이는 13.7도로, 지난 4월(15.4도)에 비하면 1.7도 줄었다. 지난 4월 일본 국가 호감도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 호감도 차이는 16.3도로 제법 커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일본 국가 호감도와 이시바 시게루 총리 호감도 차이는 11.3도로 5도 줄어들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역시 국가 호감도와 지도자 호감도 간 격차가 소폭 감소했다.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국가 호감도보다 낮은 경향 지속 다만, 그 격차는 지난 4월보다는 소폭 감소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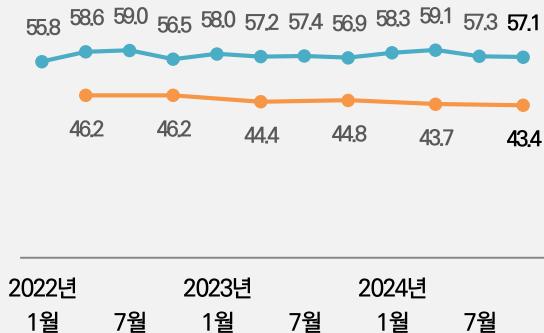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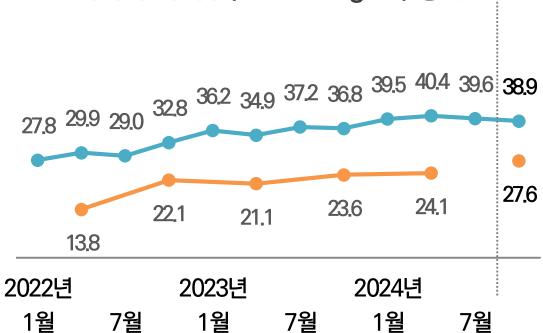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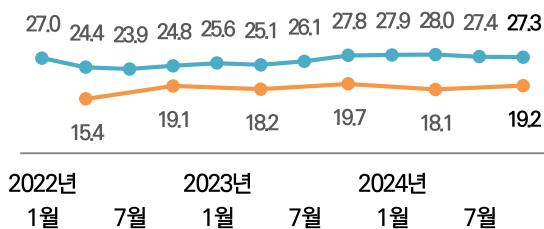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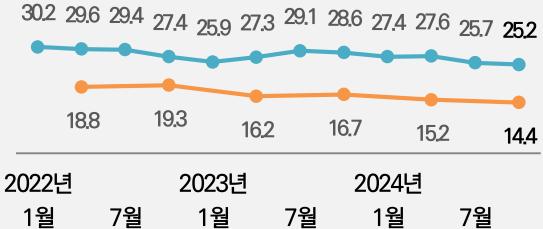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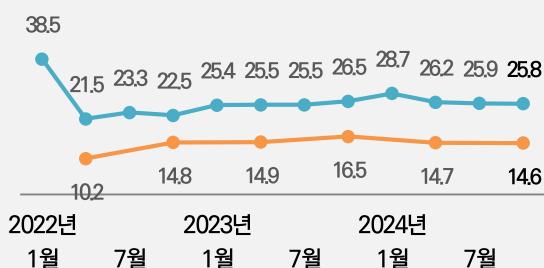
조사기간: 주변국 호감도 – 2024. 10.11 ~ 14 //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 2024. 10. 25 ~ 2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가 및 국가 지도자 호감도 비교(2022년 이후)

(단위 : 도)

■ 국가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country)
 ■ 국가 지도자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leader)

미국(USA),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일본(Japan),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총리중국(China),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북한(N.Korea),
김정은(Kim Jong Un) 국무위원장러시아(Russia),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10월 기준 약 94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29,020명, 조사참여 1,27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4%, 참여대비 78.7%)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4년 10월 25일 ~ 10월 28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